

2021년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제2차 운영위원회			
일시	2021년 7월 27일 (화) 16:00~18: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Zoom
참석자	<p> <b>■ 참석</b>            강 내 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겸임교수)            강 민 지 (소셜커뮤니티랩 대표)            신 다 혜 (㈜필더필 대표이사)            임 상 원 (순 강남청년네트워크 대표)            이 예 송 (서울특별시 청년청 주무관)            이 수 진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정 재 옥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센터장)            정 수 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사무국장)         </p> <p> <b>■ 위원장</b>            강 내 영 위원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겸임교수)         </p> <p> <b>■ 배석자</b>            이 시 은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 매니저)            김 태 원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 매니저)         </p>		
회의내용	<p> <b>1. 성원보고 및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선언</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내영 위원장 : 운영위원 총 8명 중 8명 전원 참석하여 개회가 성립됨을 보고하다. 이에 2021년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선언하다.</li> <li>● 강내영 위원장 : 운영위원회의 가결 여부 절차에 대해 설명하다. 전체안건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해 참석 위원의 동의와 재청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참석 위원들 찬성을 통하여 최종 가결이 됨을 설명하다. 가결 여부는 회의 마지막 안건에 따른 논의 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부연하여 설명하다.</li> <li>● 신규위원(이수진) 소개, 전체 위원 소개.</li> </ul> <p> <b>2. 센터 1~2분기 사업보고 및 3분기 계획보고</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재옥 센터장 : 센터 1~2분기 운영실적 보고를 하다.</li> <li>● 강내영 위원장 : 코로나 상황에서 다방면의 사업을 운영했다.</li> <li>● 강민지 위원 : 사업의 카테고리화 사업량이 많음, 멤버십레터를 통해 새로운 기획사업들을 소식을 접하고 있다. 센터 사업참여자들이 방문했을 때마다 서로 연결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도록 격려하다. 센터 임직원들간 편안한 분위기의 워크숍을 진행해봤는지 질문하다.</li> <li>● 정수미 사무국장 :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센터 밖에서 진행하고 싶었으나 4인이상 집합금지 제한이 있어 지난 5월 센터 세미나실에서 STAY.G 임직원 5명, 센터 사업 비전세우기, 관점 워크숍을 진행했음.</li> <li>● 정재옥 센터장 : 작년부터 워크숍을 가고 싶었으나 일정상 어려움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처음 센터안에서 진행을 했다. 임직원들이</li> </ul>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센터의 운영방향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 좋았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식사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 강내영 위원장 :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를 운영위원회에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임직원의 고충과 필요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다. 운영위원회와 임직원간의 교류도 있으면 좋겠다.
- 임상원 위원 : 이번 분기 센터의 <안고독한 강남 1인가구 온라인 소통방>과 <앉아서 세계속으로 러시아편>에 직접 참여했다. 온라인 소통방이 초창기 경직된 분위기와는 다르게 서서히 소통을 하며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앉아서 세계속으로 러시아> 프로그램도 참여자의 호응이 좋았다.
- 강내영 위원장 : 임상원 위원님이 직접 센터 프로그램 모니터링도 하셨다. 센터에서 기회가 있다면 모니터링겸 참여를 희망함을 밝히다.
- 신다혜 위원 : 전년도 운영위원회 회의와 비교해보면 문화예술, 1인가구 지원, 커뮤니티 등 각 분야별로 조화보다는 한쪽에 포커싱이 몰려있는 경향이 있었다. 운영위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센터에 요청드리고 자문을 했었는데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골고루 사업진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놀랐다. 이제는 사업의 측면에서 추가하기 보다는 현재의 사업구조가 갖춰졌으니 참여했던 분들의 재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다.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늘려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책공론장의 분과가 다양해서 좋았다. 센터에서 전체 포맷과 홍보문자를 잘 보고 있다. STAY.G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카톡방이나 플러스친구 채널 혹은 멤버십 갖고 계신 분들 MMS로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질문하다.
- 정수미 사무국장 : 센터에서 정기적인 멤버십레터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소식을 발송함을 채팅으로 답하다.
- 강내영 위원장 : 이수진 위원 의견을 묻다.
- 이수진 위원 : 현재는 없다. 앞으로 확인해보고 질문을 하겠다.
- 강내영 위원장 : 센터에서 수시로 이수진 주무관에게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다.
- 강내영 위원장 : 센터 방문자, 온라인 소통방 참여자, 프로그램 참여자의 기본적 인적사항(성별, 연령대 등)을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겠다. 강남구 1인가구의 특징적인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를 알아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는 양적데이터고, 센터의 직원들이 시설 방문자에게 대화를 통해서 질적인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센터에 재방문자가 많을 것 같으니 강남 1인가구의 특성, 분포도를 가지고 비교표를 만든다면 내년 사업 방향을 잡기에도 수월하고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는 민관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향임을 강조하다. 또한 네트워킹에 대한 센터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전에 요청대로 새로운 지역사회 내 조직들을 많이 만났고 다양한 사업으로 협력하고 계신 것 같다. 못 만났던 센터들이나 중간지원조직들도 다양하게 만나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다.

### 3. 2021년 1인가구 정책공론장 관련 논의

- 정수미 사무국장 : 2021년 하반기 1인가구 정책공론장 기획안을 설명하다.
- 강민지 위원 : 공론장의 결과를 가지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성이 아니기를 바란다. 공론장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관계가 남고 사람이 남아야 한다는 의견. 센터 방문자, 프로그램 참여자가 고객이나 소비자가 되면 안된다. 공론장에 오는 분들이 의견을 내고 받아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참여자와의 관계가 남는 방향성을 갖고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으로 봤을 때 시작부터 커뮤니티로 하나씩 해보면 좋겠다. 멤버들이 공론장에 온다고 생각하면 재미있고 의미있게 기획하면 좋겠다.
- 강내영 위원장 : 센터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규모의 공론장인지 타 기관과 협력하는 형태의 공론장인지 규모에 따라 1인가구 공론장의 성격이 달라질 것 같다. 센터 자체사업이라면 강민지 위원님의 말씀처럼 센터 이용자들이 주체적이고 관계중심의 형태로 공론장 기획을 해야할 것 같다. 다만, 강남구 지역전체를 아우르는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공론장이라면 참여단위에 따라 기획이 달라질 것 같다.
- 강민지 위원 : 센터가 서둘러서 이용자 대상의 공론장을 1차적으로 운영해보고 협치의 장에 참여하도록 제안하다.
- 강내영 위원장 : 그 두가지를 사무국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을 말하다. 우리 센터의 방문자의 기본데이터 정도는 마련해놓는 것이 일차적인 준비사항일 것 같다. 공론장을 개최하기 전의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준비가 안된 공론장이 열렸을 때는 형식적이거나 자원과 시간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 대상을 1인가구 당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1인가구를 지원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공론장에 초대할 것인가를 보는 것에 따라 다르다. 1인가구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청년~노인까지의 연령대별, 소득분위별, 성별에 따른 수요가 다양할 것 같다. 하여, 1인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조직을 중심으로(예시: 노인-노인복지관, 장애인-장애인복지기관, 저소득층-자활센터, 문화예술단체 등) 기관 자원을 모아보고 개별적으로는 계층별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영역별로 1인가구 지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STAY.G가 조정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설명하다. STAY.G가 다양한 층위의 1인가구를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인가구 정책을 조정, 입안할 수 있는

1인가구를 지원을 메울 수 있는 지원조직으로서 STAY.G가 의미성을 가지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봤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양한 1인가구를 지원하는 기관을 묶는 작업을 이번 기회에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다. 하나씩 묶으면 1인가구 종합정책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기관을 이용하는 1인가구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 자원을 매칭하도록 STAY.G가 하면 좋겠다. 파편화되어있는 각 계층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인 1인가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강남구 전체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보는 방법도 있다.

- 정재욱 센터장 : 서비스 분야 중심이 아닌 개인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을 돌아보는 아이디어가 좋다. 다만 우려스러운 지점은 ‘노인’ ‘장애인’의 경우 다른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이쪽 1인가구를 다루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강내영 위원장 : 여러 부서를 협업하는 작업은 이수진 위원님께서 힘써주셔야 할 몫이고 STAY.G는 민간기관(노인, 종합복지관 등)과의 연계를 담당해야 한다.
- 강민지 위원 :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에 비춰봤을 때 시작부터 너무 크게 꾸리면 힘이 빠질 것 같아 천천히 센터 내 커뮤니티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론장을 계기로 센터 이용자와 친밀해지고 의미를 쌓아가면 좋겠고, 이런 기획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견을 주다.
- 강내영 위원장 : 커뮤니티를 만드는 작업은 STAY.G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할 일이고, 강남구 전체에 어쨌든 공론장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작업은 조금 다른 결이 있음을 말하다
- 임상원 위원 : 운영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토론분과를 1안과 2안으로의 설정하게 된 계기를 질문하다.
- 정수미 사무국장 : 감정중심의 1안은 1인가구 당사자가 평소에 체감할만한 감정선의 층위를 중심으로 설정했다. 2안은 의제를 중심으로 설정했다.
- 임상원 위원 : 1인가구가 무엇을 원할지를 생각했을 때 감정중심의 1안이 와닿는다. 재미있고 파격적인 정책공론장이 될 것 같다. 2안을 추진한다면 결론적으로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도출하는 의제별 이슈를 통해 이들간의 네트워크까지 가능하도록 후속조치가 금년 안에 해볼 수 있는 선순환과정이 필요하다. 참여자를 위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도와주기를 요청하다.
- 이수진 위원 : 강남구청의 의견이 아닌 한명의 위원으로 개인의 의견임을 강조하다. 강내영 위원장이 말씀을 의미있게 들었다. 개인적인 의견은 공론장이 1인가구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1인가구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2030의 연령대

뿐만아니라 노년기 이전의 4050, 노년기 이전의 60대 초반의 연령대의 의견과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공론장의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매 차시가 거듭될수록 이들의 의견과 참여자의 층위(특성, 연령)가 어느 계층에서 나온 의견인지를 의미값을 도출해주면 좋겠다.

- 이예송 위원 : 공론장 이후 참여자의 피드백 관리가 중요하다. 공론장 참여자가 준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된 부분과 현실화되었는지를 피드백해주는 작업이 중요하다
- 강내영 위원장 : 공론장을 하나 연다는 것은 사전 작업과 사후 작업에 큰 품이 든다. STAY.G 사무국에서는 하반기 사업 수행에 너무 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이미 많이 수행한 사업은 기본사업만 하고 공론장에 더 집중을 해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 프로젝트를 위한 운영단을 만들어서 여러 단위를 모아서 STAY.G가 간사단체가 되는 형식으로 꾸려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다.
- 정재욱 센터장 : 첫 시도이다 보니 1인가구 당사자의 의견청취나 중간지원조직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 모두 중요하다. 센터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리해서 차후 공유하겠음을 밝히다.

**4. 2021년 센터 1~2분기 세입세출보고**

- 정수미 사무국장 : 2021년 센터 1~2분기 세입세출 보고를 하다.
- 강내영 위원장 : 사업비 집행률이 33%에 그쳐 하반기 사업수행에 부담이 될까 우려를 표하다.
- 정수미 사무국장 : 상반기 지역기관(강남구보건소, 강남구립논현도서관 등) 협력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음을 부연 설명하다.
- 강내영 위원장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사업비 절감에 대해 칭찬하다.
- 이수진 위원 : 하반기 센터 운영 관련 논의를 통해 조정과 논의를 진행하겠음을 밝히다.
- 강내영 위원장 : 소통을 통해 우리 센터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면 좋겠다.
- 이수진 위원 : 지속적으로 검토해보겠음을 밝히다.

**5.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 주요 현안 보고**

- 정수미 사무국장 : 센터 현안에 대해 보고하다(2월~5월까지 강남구의회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제출 5회 제출완료, 4월~5월 2020년 사회복지시설 회계점검 시행 및 지적사항 없음, 5월 센터 임직원 워크숍, 6월 센터 창립기념일 휴관, 7월 센터 멤버십 제도 개편, 종사자 1인 병가)

**6. 2021년 제2회 운영위원회 폐회 선언**

- 강내영 위원장 : 단체사진을 촬영 및 폐회를 선언하다.